

고백과 참회 전제한 한국현대사 증언록

자서전 「빈 들에서」 전3권 펴낸 姜元龍목사

한국 사회와 교회의 '어른'인 姜元龍목사가 76년 생애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속에 투영된 한국현대사의 모습을 그린 자서전을 출간했다. 「빈 들에서」(열린문화)라는 제목으로 총3권, 200자 원고지 4500매 분량의 이 저술은 파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의 秘話와 이면을 체험을 토대로 증언하고 있다. 그 증언들은 저자 생전에 공표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혹 왜곡·편향된 부분이 있다면 도처에서의 반론과 항의가 없을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단순한 한 개인의 회고록이 아니며, 개인사로 엮어진 생생한 한국현대사이자 사상사이며, 중요한 증언들"이라고 지명관 교수(전 동경여대)는 평가한다. 특히 이 자서전은 기존의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이나 통속적 자기PR책자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데에 주목을 요한다. 역사의 법정에서 묵비권이란 제도적 장치를 마다하고, 반성과 참회를 전제한 한국현대사에 대한 고백·증언·폭로이기 때문이다.

고백과 참회 전제한 한국현대사 증언록

"이 책은 자서전도 회고록도 아닙니다. 자서전은 결국 자아중심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 되고, 회고록이란 미래 지향적인 삶과는 반대되는 과거지향적인 성격의 글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이므로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살아서 역사 속에서 심판받고 싶어서 썼습니다. 그 역사란 독자를 뜻하겠지요. 다만 방식에 있어 고백록이나 참회록의 양식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국화와 칼」을 쓴 베네딕트에 의하면 서양은 죄책문화이고 동양은 수치문화라 하지 않습니까. 동양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의 전통이란 자신의 치욕을 덮어버리고 업적을 선양하기에 급급한 것이었지요. 내가 벗어나 사회를 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자서전이 드물다고 한다. 그의 말마따나 수치문화의 전통과 더불어 저자들의 고전소설적 인간이해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아킬레스건조차 없는 영웅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려내는 몰염치가 그것이다. 그에 비해 姜목사는 자신의 성격과 철학을 "비겁하다" "몸조심철학"이라고 서문에 밝혀놓는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아온 그의 이력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독자는 아무도 없겠지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짙게 풍기는 진술이라는 점

에서 이 책의 증언내용을 신뢰케 만든다.

예컨대, 그는 4·19때 한국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가 목사로 있던 교회의 대학생 교인 중 고려대 박상원 이외에 서울대 이영일(전 국회의원) 등이 데모를 이끌었던 관계로 배후자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그는 기독교선교관계획회의 참석차 홍콩에 있었다는 것. 또한 유신헌법 개헌운동의 중추역할을 했던 '민주회복 국민회의'에 참가케 된 경위를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밀려서"라고 적고 있다. 훈장처럼 빛나는 이력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형국인 셈이다. "감옥에 갈 용기가 있는 사람도 못되네" "사격권 안에서의 직접적인 저항은 자제하는 생각" 등등 흑백논리의 시대에서 "자유로운 비판자"의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흑과 백 양쪽으로부터 회색분자 취급을 받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그의 입장은 "호랑이와 뱀 사이의 입지"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역사에 순교한 이들은 나보다 용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사, 열사, 청초, 비타협 등의 인물유형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였지요. 자기의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에게 비하면 나는 보신주의자이고 비겁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죽기 아니면 살기'나 '제로 섬' 식의 사고방식은 용감한 것이기는 하나 옳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의 神學에 의하면 이 세상은 지옥도 천당도 아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견딜 만한 곳입니다. 현세란 절대적 선·악 이분법은 존재치 않는 상대적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는 "차선적 선택"이란 구절이 자주 등장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5·16이 터졌을 당시 군사혁명이 성공하기를 바랐던 사람의 하나이다"는 고백을 한 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독교 윤리학자 에밀 브루너의 「신의 명령」을 인용해 '변론'을 하기도 한다. "독재보다 더 나쁜 것은 무질서"라는 것이다. "두 가지 악 중에서 보다 적은 악인 독재를 선택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뇌 끝에 인정했던 5·16정권은 그러나 폭압적 구조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그와 결별케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정권의 '두 눈의 가시'가 바로 故장준하씨와 姜목사였다는 내용도 수록됐다. 그로 인해 '유신의 바벨탑' 아래서의 '빌라도의 재판'이었던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란 환란도 겪게 된다.

1917년생인 그는 한국현대사를 생살로 겪은

교회와 사회의 '인간화'를 위해 한국현대사와 히로애락을 함께 했던 이 시대의 원로 강원용목사의 자서전이 전3권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굴곡의 우리현대사의 이면과 비화를 증언할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의 참회와 반성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교의 보혁갈등 속에서 '대화'를 화두삼은 가교역할의 인생이었다.



강원용 목사

생애를 "빈 들(눅 4:2)에서의 소리"라고 요약한다. '빈 들'이란 예수를 유혹하던 악마들이 집단을 이루어 지배하는 장소를 일컫는 것으로, 한국땅을 그가 '빈 들'이라 규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갈래이다. 물질만능의 경제제일주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라도 절을 하는 권력승배, 이런 역사 속에서 기복사상과 광신적 선동주의로 점철된 종교관이 그것이다. 그같은 속성을 지닌 빈 들은 한 마디로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사회"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힘겨운 주장을 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소리"라고 밝힌다. 빈 들에서 간단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연보에 더 보태어, 이 책은 그로 하여금 또한 번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역사의 빈 들'에 대한 외침이다.

"나는 빈 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이를테면, 3·15 부정선거 때 내부장관을 하다가 사형된 '절대원흉' 최인규씨를 저자는 "비운의 인물"이라 묘사한다. 스스로를 "자유당의 마지막 총일"이라며 부정선거의 총책임자였음을 명쾌히 시인한 최인규씨는 역사적으로는 단죄받아 마땅하지만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 것'을 姜목사는 주문한다. 제2권 '혁명의 소용돌이' 부분에서는 최인규씨의 인간적 고민과 갈등의 모습이 소개된다. 또한

해방정국의 이승만, 조봉암, 김규식, 김구, 여운형 등의 정치지도자들의 활동을 근접거리에서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미화일변도의 인물에게선 단점과 약점을, 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히 폄하됐던 인물에게는 제자리를 찾아주는 등 특유의 중용관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역사인물'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한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고 느낀 우리 현대사의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기술하고자 할 뿐이라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광복후 우리의 현대사가 각 사관에 따라 요지경을 통해 본 것처럼 이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최소한 자신이 경험한 일만이라도 제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姜목사는 자신의 사회활동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었다고 말한다. 즉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치 외곽에서의 경고"라는 것. 그래서 이 자서전에는 우리사회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위해 그가 함께 한 경동교회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된다.

우선, 그가 설립했고 현재는 명예목사직을 맡고 있는 경동교회의 한국교회사적 업적은 "터부로부터의 자유"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경동교회는 한국교회로서는 최초로 남녀칠세부동석이란 금기를 깨고 혼석예배를 시행했다. 그때가 1947년이였다. 그밖에 여성인수문제를 제기하고(1958), 개신교 목사로는 처음

으로 가톨릭교회인 명동성당에서 설교했으며 (1969), 기독교의 이질화나 혼합종교니 하는 보수교단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천주교·불교·유교·천도교·원불교 등 6대 종교의 지도자들간의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1965). 특히 “강원용이는 교회를 나이트클럽으로 만들려 한다”는 험담을 기꺼이 감내해야 했던 “최초의 무용예배”는 흥미있는 에피소드이다. 한국 교회사상 처음으로 예수탄생을 소재로 무용가 육완순씨가 안무한 무용예배를 선보인 것(1969). 이같은 ‘터부로부터의 자유’는 “예배문화의 토착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70년대에 들어 “문화의 토착화, 복음의 상황화”를 내걸고 그 첫시도로서 추수감사절을 ‘추석날’로 바꾸기도 했다. “탈춤예배”를 거행함으로써 “민중의 저항예술이라는 특성상 대사에 상소리가 많이 튀어나와 나이트 교인들의 거부감을 사기도 했었다”며 그는 웃는다.

한편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은 “내 신학적, 철학적 입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업”이라고 한다. 그의 ‘입장’이란 “비인간화의 요인인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로서 중간집단의 육성 강화”라고 요약한다. ‘중간집단’의 이념과 철학을 정립하는 데 참여한 학자들로서 요즘 젊은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인물로는 정원식 전 국무총리, 고범서 한림대 교수, 한완상 현 부총리 등이 보인다.

보혁·좌우 극단 지양한 고독한 투쟁

“중간집단이란 입장없는 중립이나 양극의 완충지대에 적당히 위치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사회구조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식을 지닌 비정치적 민간단체를 뜻합니다. 그것의 기능은 압력과 화해할 수 있지요. 정의와 사랑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야흐로 각각 25주년, 45주년 성상을 쌓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와 경동교회의 話頭는 그 유명한 “대화”였다. 따라서 아카데미의 계간지 제호가 「대화」였고, 아카데미 학술원의 가장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과제는 대화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었다고 한다. 「대화」誌는 유신 말기에 광고탄압을 받다가 “처형”됐다.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사에 굽적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원풍모방, 동일방직, 콘트롤테이타, 반도상사, YH사건의 주역 박순이, 이충각, 이영순, 한순임, 최순영 제씨는 모두 중

간집단교육 출신이었다. “내 기억에는 없지만 사노맹 사건으로 수감된 「노동의 새벽」의 박노해 시인도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다고 하며 그의 부인은 경동교회 신자였다고 한다”는 구절도 보인다.

그밖에 이 자서전에서는 김구선생 살인범인 안두희의 배후를 암시적으로 거론한 점,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적 혐의점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63년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후보가 그것을 쟁점화한 것도 자신이 귀띔한 것이라는 점,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씨를 구하기 위해 5共들이 국정자문위원직을 수락했다는 점, 그래서 윤보선·천관우·지학순씨와 함께 “5공변절자 윤·천·지·강”이란 비난을 들었다는 점, 6공 이후 총리직을 고사했다는 점 등등 흥미롭고도 매우 무거운 사실들이 페이지마다 열거돼 있다.

산골 화전민의 자손으로 태어나 유례없는 격동의 세월을 거처온 생의 역정을 회고해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어떤 이해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온정주의적·자선적 신앙의 태도에서 구조악의 문제에 눈을 뜨게 해준 책은 1948년 일본에서 구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밝혔다. ‘심판의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의 하나님’에로의 전이가 시작되면서 톨스토이나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인물들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후 “사회적 부정의의 최대치”인 6·25전쟁이 제기한 죽음과 고난, 부정의 문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폴 티리히의 「흔들리는 터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 그때부터 “신문과 성서의 필요한 거리는 유지하되 차별성을 잊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이 책은 문민정부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끝을 맺는다. 독재와 무질서가 ‘평정’된 이 시대를 그는 “내 인생의 전환기”라고 썼다. 지금까지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선적 관계, 인간끼리의 수평선적 관계로만 해석했는데 앞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문제, 즉 생명의 문제에 대해 명상과 기도를 할 것이라고 전한다.

— 김중식 기자



소담스럽게 쌓이는 눈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눈을 이불삼아
추수 끝난 들판은 긴 겨울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봄을 준비하는 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잠시 숨을 돌려, 보다 나은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한술의 내일은
책을 만드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우리들의 책을 꿈꾸며
내년 한 해도 정열을 쏟아부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소담스럽게 쌓이는 눈처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출판계에 고급인력이 부족한 요즘, 한술에서는 전자조판에서 편집교정, 제작에 이르기까지 출판 전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 자비출판에 관심 있으신 분, 사보·단체회보를 만들려는 분에게 출판상담을 해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